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 추억의 앨범



1월 26일, 5월 8, 29일, 6월 1일 환자들에게 앨범을 만들어 전달하였다. 평소 가족들과 사진을 찍지 않아 처음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진 찍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앨범을 보니 사진 찍기를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하였다.

### ▶ 감사 편지



가족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거나 작성하기 힘든 분은 이야기로 표현해 주시면 예쁘게 대필하여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였다. 환자가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예쁘게 액자에 담아 선물 받은 가족들은 액자를 보며 즐거워하였다.

### ▶ 행복한 동행



① **야외 나들이** 5월 9일 환자 두 분의 소원으로 영휘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매일 병원에만 계시다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통해 하늘과 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② **집 앞 산책로를 가요** 6월 1일 가족들과 함께 자주 산책을 다니던 현충원으로 나들이를 가서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추억을 도란도란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감을 나타내셨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협력 모임

3월 26일 호스피스의 서비스 질 관리와 팀원 소진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관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 ▶ 부활 맞이 작은 음악회

4월 6일 부활 맞이 작은 음악회는 투병 중인 환자와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는 첼로연주자의 정성 가득한 공연이었다.

### ▶ 2018년 1차 사별 가족 모임

4월 25일 고인을 기억하고 사별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추모 미사와 마음 나누기, 미술요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안과 격려, 지지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가족사진 촬영을 해드렸다. 외부고객들의 방문이 많았던 이날 호스피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셨고 행복해 하며 환자, 가족들 모두에게도 훈훈한 분위기에 따뜻함이 넘치는 행사였다.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 사제와의 음악 여행

2월 23일 원목실 김현석 야곱 신부님과 송림4동 김상우 토마스 신부님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함께하는 모든 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잊고 있던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엠마오

4월 24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강화도 갑곶성지로 엠마오를 다녀왔다. 성지에서 미사를 드리며 호스피스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마니산을 오르며 정담(情談)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 5월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녀가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 시간을 오래 간직 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을 통해 추억을 담아드렸다.



▶ 2018년 통증 캠페인 실시



5월 18일 마리아병동 및 맞춤형 암 치유센터에서 교직원 및 입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통증에 관련된 퀴즈를 풀고 선물 및 디퓨저 만들기 시행, 통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

▶ 세계 병자의 날 행사

2월 10일 올해로 26회를 맞는 세계병자의 날, 본원의 음악회와 더불어 손 글 카드와 꽃, 선물로 호스피스병동의 환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동행인으로 함께 하고자 하였다.

▶ 호스피스팀 소진 워크숍



6월 2~3일 1박2일 "더불어 하나 되는 우리, 행복한 호스피스!"라는 주제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등 호스피스 다학제팀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도미노 게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 간 협동심을 키우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복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

▶ 1, 2, 3차 사별 가족 모임

2월 27일, 4월 24일, 6월 26일 사별 후의 슬픔은 물론 문득 차오르는 죄스러움의 시간에서 쉽게 지지되지 않는 기억들로 아파하는 마음의 행로를 어디에서도 말하기 어려우나 사별 가족 모임 안에서 나눔을 통해 위로와 용기 격려의 시간으로 풀어내고 공감하며 더욱 사랑하고 사는 것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모임으로 오늘을 잘 살고자 애쓰는 가족들에게 팀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유지하고자 한다.

대구대학교 가정호스피스

▶ 환자 나들이



5월 14일 환자 두 분과 봉사자들과 함께 수밭골이라는 호수와 꽃길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향암으로 인한 식욕부진으로 식사를 못 했는데 영양 돌솥밥과 불고기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산책하며 즐겁게 지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쉬워하시며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다.



▶ 2018년 제5차 부산·경남지역 호스피스 완화도우미교육



4월 10~12일 2015년부터 실시된 호스피스완화도우미교육을 본원에서 제5차 교육 대행을 후 평가, 실습을 지도하여 이번 차수에는 62명이 수료, 완화의료센터의 귀한 인적자원으로 기반을 갖추는 제도로 정착됨을 볼 수 있었다.

▶ 통증 캠페인 실시

5월 9일 올해는 원내에서 재원 환우와 가족, 내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호스피스 안내 리플렛과 함께 홍보용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물품을

선물하는 퀴즈와 다트 게임을 통해 재미를 더하며 암성 통증 조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재고하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장이 되었다.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반기 심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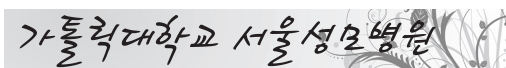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유지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심화교육(주제: 봉사와 봉헌, 심폐소생술, 죽음에 대한 이해,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탄력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주관 제18회 전국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

제18회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본원의 팀원들도 참석하여 광주대교구의 원로사목자 강길웅 신부님의 "최선을 다하지" 주제 강연을 통해 봉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모욕과 폄박, 땀방울들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돌봄의 손길이며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복된 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고, 본원의 정인창(스테파노) 님이 우수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맞았다.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임원진 워크숍



4월 13~14일(1박 2일) 경기도 양평 소나기 마을에서 자원봉사자 임원진 워크숍을 가졌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팀장과 자원봉사자 임원 10명이 참석하여 2018년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및 연간사업을 공유하였으며, 봉사활동 질 향상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 ▶ 호스피스 후원회 운영위원회, 정기 총회

3월 23일 호스피스 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은숙 후원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운영위원이 모여 2017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를 마쳤다. 4월 20일 33명의 후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사업 및 회계보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진행되어 박은숙 후원회장이 후원회장으로 연임되었으며, 예은주 후원회원이 호스피스 후원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 상반기 사별 가족 모임



5월 17일 사별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여 서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슬픈 과정 극복을 원조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상반기 사별 가족 모임을 개최하였다. 총 31명의 사별 가족이 참석하였으며 '감정 나누기', '고인에게 편지쓰기' 추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병동에서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인 영상' 감상과 봉사자로 이루어진 '호스피 안젤리'의 추모 공연을 통하여 사별 가족들은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자연스럽게 슬픔을 표현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다.



## 성가롤로병원

### ▶ 부활축하 이벤트



3월 31일 부활 대축일 (4.1)을 맞아 호스피스병동에서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병상에서의 불안감과 따분한 느낌을 부활의 의미인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시행했다.



입원 환우를 위해서 병실을 찾아 기도와 가족과 함께 사진 촬영 및 작은 기념 선물을 드렸다.

### ▶ 자원봉사자 야외화-남해 금산



5월 14일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는 산세와 우뚝 나무 사이로 솟아 있는 바위들의 어우러짐이 비단결처럼 고운 느낌으로 다가와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

유쾌한 발걸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좋은 날이었다. 봄의 기운과 녹음, 더불어 바다까지 한 몫을 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좋은 공기와 아름다움을 마음 안에 가득 담아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호스피스병동 환우들과 가족들 파이팅!!!

### ▶ 힐링의 시간 소진프로그램(힐링 아트) 5월15일, 26일



## 성바로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 후원자와 봉사자를 위한 신년 미사

1월 19일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의정부교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의 집전으로 지난 한 해의 감사와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후 2017년 센터 활동보고 및 회계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 Well-dying으로부터 시작되는 Well-being



4월 13일 강영옥 강사(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의 “Well-dying으로부터 시작되는 Well-being”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을 넓히게 되었고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웰다잉으로 연결되는 웰빙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 ▶ 성모의 날

5월 12일 아름다운 꽃들과 신록이 어우러진 센터 프락에서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성모의 날 행사를 했다. 1부에는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김경모



야고보 신부님의 집전으로 봉헌되었고 2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합창, 테너 홍관수 박사님, 최종근 빠꼬미오 성요셉수도원 원장님의 특송을 들으며 찬미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 서예 특별전

4월 5일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서예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취미활동으로 서예를 즐기던 호스피스 환우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환우의 작품들을 병동 복도에 게시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환우의 가족들과 친지가 방문하고, 주위 환우들도 함께 축하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 ▶ 어머니와의 추억



3월 20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큰 호스피스 환우를 위해 어머니와 추억이 있는 광고호수공원에 방문하였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 ▶ 행복한 한 끼



4월 19일 가족들과 함께 모여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박○성 환우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병동 내 요법실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다. 바쁜 일상으로 환자와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 창원파리다병원

#### ▶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



3월 31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은 부활절 계란 꾸미기를 하였다. 은혜 병동에 계시는 환자와 가족에게도 축하식 후 간단한 다과와 부활 계란을 나누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 ▶ 호스피스 팀원 소진관리



4월 13일 호스피스팀원이 함께 소진관리를 위해 에코백 만들기를 하였다. 자원봉사자 회장인 김형수(프란치스카)님의 지도로 제작과정을 따라 하며 아름답게 변화되는 가방을 보면서 조금씩 기분전환도 되고, 서로 미소를 머금으며 행복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가방 완성 후 치킨파티로 또 한 번 힐링 타임을 보냈고, 참석하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추가로 만들어 선물하였다.

#### ▶ 통증 캠페인 실시



5월 10일 원내 통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작은 바자회' '차와 함께 하는 타임'을 겸한 통증 캠페인으로서 고객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O·X 퀴즈를 통해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제공과 기념품도 제공하였다.

#### ▶ 은혜 야외정원 새 단장

5월 28~30일 병동 야외정원을 새로 단장하였다. 풍성



하게 자란 풀들도 정리하고, 예쁜 물레를 포함하여 단아한 분위기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병실에서도 정원을 바라보며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햇빛을 적절히 가려줄 차단막이 있어 가족들과 환자분들이 야외정원을 더 즐기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이면서 직원들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곳이다.

### 천주의 성모한병원

####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피정

3월 20일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호스피스활동을 다짐하며, 영육 간의 충전을 위하여 담양 대건 센터에서 60여명의 봉사자들이 '빛이 생겨라'라는 주제로 피정을 하였다. 피정과 봉사 선서식을 통해 봉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적인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호스피스 활동에 임하기로 다짐하였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별 가족 모임



4월 27일 '그리움도 행복 이어라'라는 주제로 사별 가족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별의 슬픔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따뜻함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일상들에 대해 마음을 표현하고 사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미처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꽃 엽서에 적어 고인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촛불 봉헌을 하면서 고인과의 추억을 되돌아보고, 슬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 21주년 기념 및 추모 미사



5월 25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개원 21주년을 맞이하여 유가족들을 모시고 돌아가신 모든 분을 기억하며 추모 미사를 봉헌

하였다.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안식을 바라며 위패를 봉헌하고 유가족의 추모사, 동영상을 통해 그리운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남겨진 가족의 그리움과 슬픔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소진 예방 프로그램

업무 중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과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공유하며 팀원 간 소통, 화합을 강화하고 팀원들의 소진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3차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팀원들 간 더욱 돈독해지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3월 21~22일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 및 원내 직원으로 68명의 수강생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제2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을 본원에서 5월 26일~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09:00~18:00 6주 과정으로 49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 ▶ 호스피스완화병동 봄나들이





4월 26일 호스피스완화병동 및 가정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을 모시고 인천나비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떠났다. 4가족이 참여하여 산책, 가족사진, 음악요법, 다과, 장기자랑(상품 증정) 등 시간을 보냈다.

▶ 어버이날 맞이 소고기 야채죽 식사 나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이 함께 소고기 야채죽을 만들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대접하였다.

▶ 통증 캠페인



5월 31일 본원 1층 로비에서 내원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OX 퀴즈, 호스피스상담, 통증 및 각종 리플릿, 홍보물(부채) 배포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8년도 기관대표자 회의 및 제11회(총 27회) 정기(대의원)총회

2월 23일 서울성모병원 간호대학 301호에서 기관대표자회의 및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기관대표자회의에 산하기관 대표, 이사, 고문 등 23명이 참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내용과 협회에 바라는 점(봉사자 수급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였고, 정기총회에

는 17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2017년도 사업·회계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회 임원선출(회장·황관옥), 정관변경,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등을 논의하였다.



▶ 제18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및 심화 교육

4월 25일 대전성모병원 상지홀에서 산하기관 대표, 전국의 자원봉사자 등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길웅 신부님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제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행사에서 우수봉사자상(대구대교구-박남준, 부산성모병원-정인창, 서울성모병원-이건숙, 대구파티마병원-손향옥, 대전성모병원-최성미, 성빈센트병원-박윤희, 여의도성모병원-강은영, 인천성모병원-이광숙)을 수여하였다. 기념행사 후 김은석 신부님이 집전하신 미사 전례가 있었다.



▶ 제1, 2회 이사회

1월 22일 제1회 이사회(서울성모병원), 4월 25일 제2회 이사회(대전성모병원)를 개최하였다. 1회 이사회에서 2017년 결산·2018년 예산보고, 정관변경과 2018년 임원 추천을 토의하고 2회 이사회에서는 2018년 이사 위촉장 수여와 세미나 일정을 논의하였다.